

해외의약뉴스

어린 시절 비타민D 부족이 나중에 심장 위험과 관련이 있다.

저자: Nicholas Bakalar

개요

유년기의 비타민D 결핍증은 중년의 동맥 경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장기간에 걸친 핀란드 연구 결과가 있다.

키워드

유년기, 비타민D 결핍, 동맥 경화

임상 내분비·대사 학회지에 게재된 이 연구는 3-18세, 2,148명의 어린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1980년에 시작되었다. 신체검사 기간 동안에 혈청 비타민D의 수준, 혈압, 지질 수준, 다이어트, 흡연, 신체 활동을 포함하여 45세까지 검사하였다. 의사는 목의 경동맥을 포함한 동맥을 검사하는데 초음파를 사용하였다.; 동맥의 비후가 높은 것은 심혈관계 질환의 징후로 간주된다.

30~50ng/ml 사이의 비타민D 수준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mL당 약 15ng 정도 되는, 비타민D 수준이 가장 낮은 4분의 1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다른 4분의 3에 해당되는 아이들보다 경동맥 비후가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협회는 연령, 성별 및 기타 심혈관계 질환 인자를 제어한 후 분석하였다.

“비타민D 결핍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주 많다.”라고 핀란드 투르쿠대학교의 내과 교수이자 저자인 Markus Juonala 박사는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맥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하지만 저자는 심장 질환 또는 뇌졸중이 아닌, 동맥의 상태에 따른 연관성만 발견함을 인정했다. “연구 결과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 함구불언한다.” 라고 Juonala 박사는 말했다.

■ 원문정보 ■

http://well.blogs.nytimes.com/2015/02/10/low-vitamin-d-in-childhood-linked-to-later-heart-risks/?ref=health&_r=0